

## 세계신종교학회 유명 교수 일행 제단 방문

(마시모 前회장 외 4명)

10월 20일 세계신종교학회 교수 및 연구자들이 승리제단을 방문하였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세계신종교연구소장(Managing Director of CESNUR), 고든 멜튼(J. Gordon Melton) 미국 베일러대학교(Baylor Uni.) 교수, 베르나데트 리갈셀러드(Bernadette Rigal-Cellard) 프랑스 보르도몽테뉴대학교(Bordeaux Montaigne Uni.) 교수, 홀리 포크(Holly Folk) 미국 서부워싱턴대학교(Western Washington Uni.) 교수, 제이슨 그린버거(Jason Greenberger) 대순사상학술원(大巡思想學術院) 연구원, 한국새종교연구원 이경우 원장, 국제신인류문화학회 한강현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마시모 소장 일행은 승리제단 예배에 참관하여 조희성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순서 일체를 참관하였다. 예배 후 김영숙 승사는 승리제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 일행은 로비에 진열된 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시모 소장은 그 중 성혈과 성배(Holy Blood and Holy Grail)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물었다. 성혈과 성배는 인간 예수의 실체를 영국 BBC 방송 피디들이 파헤친 다큐멘터리이다. 한강현 부회장은 "성혈과 성배가 한국 행림출판사에서 발행된 후 기독교 목사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후 모든 책을 폐기하는 과정 중 승리제단에서 그 일부를 사왔다"고 말했다. 김종만 본지 발행인은 "승리제단 조희성 구세주께서 밝힌 예수의 실체와 동일한 내용이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



마시모 소장 일행과 기념촬영을 했다(오른쪽 세번째부터 홀리, 베르나데트, 마시모, 윤봉수회장, 이경우 소장)

교단에서 그 책을 홍보용으로 사용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홀리 포크 교수는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진화론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발행인은 "승리제단은 진화론과 창조론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인류가 아메바나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피와 유전자가 들어 있다"고 답했다.

베르나데트 교수는 결혼, 동성혼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발행인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하면 죄를 지을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결혼하면 죽는다(예 레미야 16장)고 기록되어 있으니 천국 백성이 되려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곳은 승리제단뿐이다."라고 답했다.

마시모 소장 일행은 구세주를 배출한 성지 '밀실'을 방문한 후 제단으로 다시 돌아와 1시간 휴식을 취한 후 숙소로 돌아갔다.

한국 신종교를 연구해온 제이슨 연구원은 학자들이 "승리제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승리제단 식구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에 대해 언급했고, 승리제단 탐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했다. (They remarked about how warm and hospitable everyone was, and they spoke quite positively about their experience.)" 한편 마시모 소장파

고든 교수는 예배가 매우 인상적이다(impressive)라고 답했다.

마시모 일행은 대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에서 10월 14~15일 이틀 동안 개최한 세계상생포럼에 참가하였고, 그 며칠 후인 20일 승리제단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승리제단 방문은 국제신인류문화학회 한강현 부회장이 2016년 이스라엘 세계신종교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마시모 소장의 2017년 10월 방한 소식 일정을 듣고 승리제단은 한국신종교운동의 열매 맺는 곳이며 마지막 천지개벽의 주인공, 성경 상의 이긴자 금은(金運) 천사(天使)가 이끌고 있는 성령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제단 연구와 탐방을 권유·제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방문 교수 프로필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은 1955년 6월 14일 로마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자 지적 재산권 컨설턴트이다. 그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연구하는 국제 학자 네트워크인 CESNUR(Center for Studies on New Religions) 새 종교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소장이다. 종교 사회학 분야의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의 종교 백과사전(Enciclopedia delle religioni)의 주 저자였으며 종교

학 연구의 학제 간행물(Interdisciplinary Journal of Research on Religion) 편집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홀리 포크(Holly Folk)는 19세기와 20세기 미국의 종교계를 폭넓게 연구하는 문화사학자이다. 그녀는 특히 새로운 종교 운동, 코뮌, 토착 종교, 미국 토착 종교, 그리고 미국의 불교를 포함한 비주류 종교단체에 관심이 많다. 포크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과 종교적 유토피아론의 역사에 관한 논문을 저술했다.

그녀는 복음서의 백과 사전(The

Encyclopedia of Evangelicalism) 편찬에 참여했으며, 19세기 카톨릭 여성들에 관한 논문은 북 아메리카의 여성과 종교의 백과 사전에 등재되었다. 포크는 초기의 척추 지압과 19세기 대안 의학과 관련된 책 집필을 하고 있으며, 진보 시대의 형이상학적 기원이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의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베르나데트 리갈셀러드(Bernadette Rigal-Cellard)는 물론교를 가장 잘 아는 프랑스 학자이다. 처음에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물론교를 연구하였고, 미국에서 공부하였다.



존 고든 멜튼(J. Gordon Melton 1942년 9월 19일 생)은 미국 종교 학회의 창립 이사였으며 현재 미국 베를린 대학교의 베일러 대학 종교학 연구소의 미국 종교사로 유명한 교수이다. 미국 종교사를 비롯하여 42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위키백과참조 <https://en.wikipedia.org>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9>

####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이 길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손을 든 것이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하니 “내가 무엇인데 맡기나? 맡기는 것도 음란죄다”라고 지적만 하시는 것이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안 했다고 지적만 하시는 것이다. 맡기는 것도 못 맡겼다고 하시고, 기도를 해도 안 했다고 하시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단만 치시는 것이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당신에게 기도를 해 주시고 맡겨주세요” 하니 그제야 하나님이 웃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찾은 것이요 자유율법 지키는 비결을 알게 된 것이다. 수십 년간 이렇게 저렇게 투쟁을 해보고 싸워보고 해서 겨우 정통 길을 찾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 승리절 행사 연극을 준비하면서

승리자의 위대함과 존귀하심을 우리 모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과정을 원고로 정리하고 나니 갑자기 무섭고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아닐는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깨알 같이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면 나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고 한 그 이튿날 만난 새식구가 하나님께서 키워 오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감동이 되었다.

9월 17일 처음 제단식구들과 연습을 마친 후 창밖을 보니 무지개가 떠 있었다. 반가워서 바로 달려나가서 사진을 찍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무지개를 띄워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났다. 책임 승사님과 부인회장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단에서 소풍을 준비할 때 온 제단에 웃음을 늘어놓았다. 가위질과 바느질로 정성을 기울이는 여러 권사님들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옛날에 비늘 하나로 명주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에 탄복이 나왔다. 꼭 잔칫날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잔칫집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 연극을 재미있게 꾸며보려고 첫 번째 춤은 하늘나라 에덴동산을, 두 번째 춤은 하나님이 마귀 속에 묶여져 있는 끈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내시는 주님의 처절했던 연단과정을, 세 번째 춤은 주님께서 이기고 이기신 최고의 영광을 가슴 벅찬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 연극을 연습하는 중에 제단 나오다 떨어진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다. 온갖 공갈 협박으로 목숨을 하기에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집 현관 앞에 와서 벨을 누르고 두드리고 발로 차고 고통을 치고 한참을 하다가 가는 것을 보고 가족들은 전도를 순한 사람만 하지 저렇게 무지막지한 무식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알았

다며 하루를 보냈다. 추석 때 국을 끓이려고 길을 가다가 조개를 주문하는 전화 중에 낙엽 쌓인 구덩이에 발목을 빼었다. 순간 춤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섰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지다 꼬시다 잘했다 하고 웃었다.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작은 일을 하는데도 사방팔방에서 온갖 방해가 다 들어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상을 영생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시니 얼마나 방해와 반대와 억울한 누명을 당하시면서 힘드셨을까, 그 얼마나 참기 어렵고 힘드신 것을 참고 인내 하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주님께서 보광하시기 전 마지막 예배 말씀에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수십 번이나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 왔다.\*

석선희 승사 / 진해승리제단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sup>제종교</sup>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の 證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군산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